

북가주 노동절 쉬임 집회

2022년 9월 2일-4일

전체 주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메시지 1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과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잠 29:18상, 행 26:18상, 딤후 1:4, 갈 2:16, 20, 히 11:1, 5-6

- I.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이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 행 26:18상, 잠 29:18상.
- II.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 가정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으로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 딤후 1:4, 3:15, 엡 1:22-23.
 - A.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딤후 1:4, 엡 1:10, 눅 24:45.
 - B.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그 최종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 요 1:14, 29, 12:24, 20:22, 14:2, 3:3, 5, 29-30, 계 21:2, 10.
 - C.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있다 - 엡 3:2.
- III.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 딤후 1:4.
 - A.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일과 행함을 멈추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 히 11:6.
 - B.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스스로 행함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수행된다 - 요 3:15-16.
 - C.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을 하나의 광경처럼 보는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에 관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 것을 믿는다 - 엡 3:9, 히 12:2.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 곧 믿는 생활이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는 것에 따라 산다 - 요 20:25-29, 갈 3:2, 14, 고후 5:7, 4:18참조.
- IV.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조건이며, 우리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 갈 2:16, 20.
 - A.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
 1. 믿음은 믿는 이들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감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 벰전 2:7.
 2.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감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로 믿게 하는 믿음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는 역량이 되신다 - 갈 2:16, 히 12:2.

B.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 사는 생명이 ...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입니다.”라고 말한다.

1.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믿음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 - 갈 2:16, 20, 3:22.
2.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 - 마 17:5, 히 12:2.
3.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의’ 믿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 롬 3:22, 26, 갈 2:16, 20.
 - a.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이 믿음은 그분께 속하며 또한 그분 안에 있다.
 - b.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다 - 갈 2:20, 딤후 1:4.

V.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실질화’라는 단어는 (색깔이 우리의 눈에 의해 실질화되고, 소리가 우리의 귀에 의해 실질화되는 것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실재가 되게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 A.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실들은 모두 실재이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 실질화될 수 있다.
- B.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활과 일이라는 성취된 사실들은 우리에게 의해 실질화되어야 한다. 즉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어야 한다.
- C.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고후 4:13)을 사용하여 신성한 사실들을 실질화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으면, 신성한 사실들을 실질화하고 그것들을 갖게 된다.

VI.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다’ 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 히 11:5-6, 1-2, 고후 4:13, 18.

- A.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히 11:6상.
- B. 하나님께서 ‘-이다’ 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창 5:24, 히 11:5, 요 8:58, 전 1:2.
- C. 하나님께서 ‘-이다’ 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 눅 9:23, 갈 2:20.

VII.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사실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믿음은 그들의 영 안에 있으며, 그들의 연합된 영을 믿음의 영이 되게 한다 - 고후 4:13과 각주 2.

- A.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요일 4:8.
- B.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고후 12:9.
- C.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히 7:25.
- D.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고전 1:30, 골 1:27, 요 14:20, 15:5.

- E.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롬 8:16-17.
- F.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골 2:10.
- G.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고전 3:16, 6:19, 고후 6:16.
- H.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과 애정 어린 관심을 믿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선다 - 벧전 5:8-9.
 - 1.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 요일 3:8.
 - 2.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히 2:14.
 - 3.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부활 생명은 죽음이 만지지 못하고,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의 경계 너머에 있고, 죽음에서 나오며, 죽음이 붙들 수 없는 생명이다 - 행 2:23-24, 빌 3:10, 골 2:12-15, 20, 3:1, 요 14:30.
 - 4.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초월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엡 1:20-22, 2:6, 6:11, 13.
 - 5.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승리가 완전하며 우리의 온 일생이 이 승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과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리의 위치에서 싸운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도하시는 이기는 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내아이의 머리와 중심과 실재와 본성이시고, 뒤따르는 이기는 이들인 사내아이는 주님의 몸이다 - 계 3:21, 12:5.

VI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유들은 믿음에 의해 실재화되고 실현된다.

- A.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준다 - 딤후 3:15, 엡 1:3.
- B. 믿음은 육체와 그 타고난 힘과 노력을 잘라 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게 한다 - 롬 5:2.
- C. 우리가 살아 낸 하나님 자신인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 빌 3:9.
- D. 우리는 믿음에 의해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 행 26:18, 롬 6:19, 22.
- E. 사람의 마음을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신성한 생명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 행 15:9.
- F.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신다. - 엡 3:17.
- G.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고, 믿음으로 복음의 최종적인 복이신 그 영을 받았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을 받는 것은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일생토록 계속되는 문제이다 - 갈 3:2-5, 14.
- H.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는다 - 히 6:12.
- I.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다. - 요일 5:4.
- J.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음으로써 악한 자에 대해 승리한다. - 엡 6:16.
- K.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 - 히 11:33-34.

L.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갖게 된다 -
벧전 1:5, 마 17:19-20, 21:21-22.

IX.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이다. - 히 3:7-8상, 13, 15, 4:7.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사람이어야 한다...미래를 내다보지도 말고 과거를 뒤돌아보지도 말라. 우리는
오늘의 사람이다...우리에게는 결코 내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다. 매일이
오늘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 안에서는 매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날은 오늘이다. 오늘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되어야 한다. 오늘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5, 제5권,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 484-485쪽)

메시지 2

“연결하는 믿음 - 이기는 이들의 믿음”

성경: 히 13:7, 롬 1:17, 4:17, 10:17, 갈 5:6, 6:10, 롬 12:3, 영한동번 찬송가 535장

I.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히 13:7, 행 6:5)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롬 10:17)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A.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며, 우리는 이 요점의 결정(結晶)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에는 세 방면이 있다.
 - 1.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 - 요 10:35.
 - 2. 그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 요 1:1.
 -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그 영이 있다 - 엡 6:17, 요 6:63.
- B. 기록된 말씀과 살아 있는 말씀과 적용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영 곧 그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 C. 믿음의 근원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 그 분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접촉하고 그 영의 말씀으로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 롬 4:17.

II. 우리는 믿음의 효능 곧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A.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거라.’라고 하면 옮겨 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마 17:20하.
- B.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작사한 영한동번 찬송 535장은 믿음의 효능을 보여 준다. 5절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항상 우리를 무효화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마 19:26). 그런데 주님은 또한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에 적용된 주관적인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이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III.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 갈 6:10.

- A. 이 가족은 큰 집안이며 이 집안의 성(姓)은 ‘믿음’이다. 이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스미스씨 가정’ 혹은 ‘이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 가정’의 식구들이다.
- B. 우리는 큰 집안인 믿음의 가족의 식구들이다. 이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 히 1:2, 마 17:5.

IV.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요 3:15, 36).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고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는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한다.

- A.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 요 1:12-13, 3:16.

- B.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재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믿음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 연결한다.
- C.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신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야 한다 - 요 15:1, 5.
- D.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연결점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하나님-사람들로 만든다.
- E. 우리는 연결하는 기관에 의해 그리스도를 사는데, 이 연결하는 기관은 믿음이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사는 생명은 믿음 곧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 F.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분배된 믿음이 되시며,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으로 그분을 산다. 살아 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작용한다(갈 5:6). 믿음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 G.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온, 단지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주님을 조금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주입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되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 빌 4:6, 12.
- H. 우리 믿는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곧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이 믿음은 항상 우리를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한다 - 고후 5:7, 히 11:27, 벧전 1:8.
- I.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박해를 견딘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붓는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 히 4:16, 롬 10:12-13, 딤후 2:22, 엡 6:17-18, 시 119:15과 각주 1.

- A.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부음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살아 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 B. 시작 단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그 영께서 우리 안으로 설치되셨다. 우리 안으로 설치되신 이 영 혹은 이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자란다 - 롬 10:17, 12:3.
- C.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이 절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표어로 간주될 수 있다.
- D.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 단계이다. 둘째 단계인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
- E.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게 했는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둘째 단계 안에 있는 연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 비교 골 2:19.

VI.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A. 냉철한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에 있어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라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랐던 것처럼 자란다면, 우리가 받는 믿음의 몫은 아주 커질 것이다.
- B. 하나님은 먼저 질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고, 그다음으로 양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시는 것에 달려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에 달려 있다.
- C.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냉철한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줄어든게 하실 수도 있다 - 비교 눅 1:53, 마 5:3.

VII. 믿음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 살전 1:3, 5, 7-8, 롬 1:8.

- A.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일’을 기억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가 되었으며,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그들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 - 살전 1:3, 7-8.
- B.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살고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이다 - 딤후 1:5, 딤후 1:5.
- C.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위치만 니처럼 일보다 생명에 더 관심을 두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참조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위치만 니 전기, 11장.

VIII.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맞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 A.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셔서,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곧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며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조금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 고후 1:8-9, 요15:5, 빌 3:3, 비교 아 8:5.
- B. 존 넬슨 다비(J. N. Darby)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이것이 믿음이다.
- C. 우리는 큰 기적이거나 큰일이나 큰 성공을 위해 있지 않다. 주님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연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감추어진 이기는 이들로 발견하기를 기대하신다 - 롬 11:3-4, 시 83:3하.
- D.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는 연결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을, 그들의 믿음의 결말(결과)인 그들의 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보배들로 발견하실 것이다 - 벰전 1:8-9.

E.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마 25:10, 계 19:7-9).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이기는 이, 곧 살아 있는 믿음으로 항상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가 되는 것이다.

IX.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왕이 되는 권리와 그분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보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다(계 20:4, 6). 그때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마 25:21, 23)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X. 우리는 이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지체들로 산출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신성과 인성의 비밀한 연결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지니신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확대하고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계 21:2-22:5). 이것이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메시지 3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성경: 엡 6:12, 14-16, 딤후 1:5, 딤후 1:5, 벰전 1:7, 9, 4:12, 16, 히 10:35, 37, 39

I.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 엡 6:12, 16.

- A.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으로서, 원수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리기 위한 것이다 - 엡 6:16.
- B. 우리는 믿음이 우리와 사탄 사이에 놓인 방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1.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 곧 비난,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에 대항하는 안전장치이다 - 고후 2:11.
 - 2.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들의 형태로 온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탄에게서 온 생각들이다.
 - 3. 화살이 올 때 그것은 방패에 맞게 되고,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다 - 엡 6:16.
- C. 믿음은 진리와 의와 화평 다음에 온다 - 엡 6:14-15.
 - 1. 우리는 우리의 허리띠로 두를 진리와 우리의 양심을 덮을 의와 우리의 발을 위한 입지인 화평과 우리의 전 존재를 방어할 믿음이 필요하다.
 - 2.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의를- 우리의 덮개로 가지며, 화평을 우리의 입지로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엡 6:14-16.
- D. 믿음의 방패에는 여러 방면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막 11:22),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롬 8:31-39),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고전 1:9, 요일 1:9),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엡 3:2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요 6:63, 68, 행 20:32),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엡 1:9, 1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롬 9:19-29)이다.

II.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말한다.

- A. 믿음의 시련은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다.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의미한다.
- B.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벰전 4:12.
- C.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믿음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 - 요 3:15, 36, 1:16.
- D. 성경은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 - 벰전 1:7, 4:12.
 - 1.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 엡 4:15.
 - a.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믿음이 먼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 b.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란다 - 벰전 2:2, 벰후 3:18, 고전 3:6-7.
 -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입증하신다 - 벰전 1:7.
 - a.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 딤후 1:5, 딤후 1:5.
 - b. 인정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된다 - 벰전 4:11, 요 12:28.

- 1) 하나님의 이름은 인정받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 벰전 1:7.
 - 2) 우리가 환난과 박해와 장애물과 어둠을 통과할 때, 그리고 이러한 시험 후에도 여전히 믿고 이러한 시련 후에도 여전히 견고히 서 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 벰전 2:12, 4:12, 16.
- E.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다 – 벰전 1:7.
- F.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라고 말한다.
1. ‘불로 ...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라는 말은 ‘믿음’을 수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련’을 수식한다.
 2.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금의 단련이다.
 - b. 금은 정련하는 불로 단련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입증된다.
- G.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다 – 벰전 1:7-8.
1.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같다. 학생은 공부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다.
 2.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면, 그러한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 벰전 1:7-8.
 - a.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마 28:20), 감추고 가리는 방식으로 계신다.
 - b.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될 것이며, 그 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공개적으로 뵈게 될 것이다 – 계 1:7.
 - c.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 인정받는 것도 나타날 것이다.

III.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말, 곧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 벰전 1:9.

- A.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삼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께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시대적인 형벌에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
- B.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 곧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이다. 우리 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결말이다 – 벰전 1:9, 13, 마 16:27.
- C.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에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 마 25:31.
1.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 마 10:37-39, 16:24-27, 눅 17:30-33, 요 12:25.
 - a. 혼생명을 잃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혼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이 누림을 계속 갖도록 혼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마 16:25.
 - b. 우리는 오늘 혼생명을 잃고 다음 시대에 혼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오늘 혼생명을 구하고 다음 시대에 혼생명을 잃든지 할 것이다.
 - c. 우리가 오는 시대에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생명을 잃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마 25:21, 23.

2.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믿는 이들은 그분의 심판대를 거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또 어떤 믿는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 마 25:21, 23, 24:45-46, 25:30, 24:51.
3.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다 - 히 10:39.
 - a.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 또는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 주님을 따를 때, 혼을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 b. 만일 우리가 지금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혼을 구할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즉 혼을 얻게 될 것이다 - 눅 9:24, 뱀전 1:9.
 - c.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의 보상일 것이다 - 히 10:35, 마 16:22-28.
- D.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 주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근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수단이다 - 뱀전 1:5.
- E. 우리는 놀랍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이러한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며, 또한 이 구원이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 롬 8:19, 23.

메시지 4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성경: 행 7:2, 히 11:8-10, 창 12:1-3, 7-8, 13:3-4, 18, 14:1-24, 갈 3:6-7, 14, 16, 29

I. 삼일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골 2:9)는 아브라함의 씨(후손 혹은 자손)이다(창 12:7, 마 1:1, 갈 3:16).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고후 5:17)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골 1:27),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엡 5:30).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갈 3:7, 29).

A.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 생명의 영이 되셔서(생명 주시는 영, 생명의 영으로 변형되셔서 혹은 공기화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고전 15:45하, 롬 8: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후손 혹은 자손)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갈 3:6-7, 14, 16, 29.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고 (창 12:7, 13:15, 17:8), 이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고전 15:45하, 고후 3:17)의 예표이다.

2.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갈 3:14)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와 좋은 땅 모두의 실재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3.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가장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러한 분을 매일의 뭇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C.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歷史)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한다 - 롬 4:12.

1.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롬 4:16, 갈 3:7-9, 29)이 되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롬 4:16)이다.

a.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창 13:16)과 하늘의 별들(창 15:5)에 비유된 두 종류의 후손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땅에 속한 육체의 후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후손들로서 하늘의 별들과 같다(창22:17-18).

b.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 선택된 새로운 족속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족속 안으로 태어났지만,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족속 안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족속의 구성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롬 4:16, 갈 3:7.

2.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확이다 - 히 11:8-19.

II.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 행 7:2, 비교 요 14:21, 막 11:22.

- A.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심에 의해 산출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 계 5:6, 고후 2:10, 히 12:2, 갈 2:20, 비교 막 11:22.
- B.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유일한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 자신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는 요소로 옮겨 부어지시어 그의 믿음이 되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혹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감상한 것이었다.
- C.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 창 12:1-3, 7-8, 13:14-17, 15:1-7, 롬 4:3, 창 18:17-19, 비교 행 26:16, 22:14-15.
- D. 주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셨다 - 요 8:56-58, 출 3:14-15, 행 7:2.
- E.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한다.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한다 - 요 14:21, 행 26:16, 딤후 4:8.
- F.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창 12:7-8, 13:3-4, 18, 롬 1:17, 4:16-17, 히 12:1-2상, 마 16:18, 롬 12:1-2, 계 21:2.
- G.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히11:8)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취할 기회를 주었다(출 33:14-16).

III.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창 12:7-8, 13:3-4, 18.

- A.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은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고,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 있을 수 없다 - 출 33:20, 욥 42:5, 마 5:8, 요일 3:2-3.
- B.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창 8:20-21상, 출 29:18-22.
- C.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체류자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증언했다 - 히 11:9-10.
 - 1. 천막은 제단의 결과이다. 제단과 천막은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2.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이다.
 3.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더 좋은 고향, 하늘에 속한 고향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다 - 히 11:13-16, 10, 12:22, 계 21:2.
 4. 아브라함의 천막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성경은 천막으로 끝마친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서 궁극적인 천막, 궁극적인 장막이다 - 계 21:2-3.
 5. 우리는 회막의 실재인 교회생활이라는 ‘천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완결, 곧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 딤후전 3:15, 레 1:1, 히 11:9-10, 계 21:2-3.
- D.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이다 - 창 12:9-10, 13:3-4, 롬 10:12-13, 12:1-2.

1.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 창 13:18.
2.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우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그분의 믿는 이를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분의 중보기도자로 얻으실 수 있었다 - 약 2:23, 대하 20:7, 사 41:8, 창 18장, 요일 5:16상, 갈 4:19, 요일3:8.

IV.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 창 12:7-8, 14:1-24, 롬 4:12.

- A.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 가는 잘못을 범하였다(창 13:5-12). “그때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13절)
- B.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다(빌 3:17, 고전 4:16-17, 히 13:7).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러한 이들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 안에 지켜질 수 있다(고전 15:33, 잠 13:20, 딤후1:15-18, 2:22).
- C. 소돔 주위의 땅은 비옥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향해 이동하였다. 결국 롯은 그 성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살고 정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돔은 정복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 창 14:12, 비교 렘 2:13.
- D.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의 약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롯의 고난과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였다 - 요일 5:16상, 잠 10:12, 약 5:19-20.
- E.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였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곧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였다 - 창 14:14, 22, 딤후전 2:8.
- F.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의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네 왕과 그들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것은 장면 뒤에서 (‘의의 왕’을 의미하는) 멜기세덱, 곧 (‘화평’을 의미하는) 살렘 왕이 롯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싸움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 창 14:18-20, 히 7:1-4, 25-26, 4:14-16, 롬 8:26-29, 34.

- G.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돌봄아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 히 5:6, 10, 7:1-3, 25.
- H.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 히 7:25, 8:2, 눅 22:31-32, 요 21:15-17, 행 6:4, 계 1:12-13, 비교 출 28:9-12, 15-21, 29-30.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전 5:1-2).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2. 장로들은 목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덮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들의 결함들과 단점들과 죄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가질 자격이 없다.
 3.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좋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강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사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 마 9:12, 요 8:7-11, 마 27:38, 눅 23:42-43, 15:1, 마 9:10, 19:13-15.
 4.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어야 한다 - 눅 15:2-10, 17-18, 20.
 5.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가져야 하며, 그분의 임재가 매력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삼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고, 사람들은 주님께 매혹될 것이다.
 6.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소중히 보살펴야 한다.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즐거운 얼굴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 - 시 42:5, 11.
 7.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또한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 요 1:14, 고전 15:45하, 계 4:5, 5:6, 빌 3:8-14.
 8.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계 7:17.